

# 인터넷 불교교양대 늘고 있다

## 전국 10여곳 원격 화상강의... 해외불자도 관심

정보화 시대를 맞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유망 스님들의 설법 및 강의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버 불교대학이 늘고 있다. 특히 출석과 학점관리가 인터넷으로 이뤄져 지역적인 문제로 인해 입학에 어려움을 겪었던 해외 불자들의 관심이 높게 일고 있다. 이미 전북불교대학이나 동산불교대학에는 미국이나 독일 등지에서 10여 명의 교포불자들이 입학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의와 학사관리가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사이버대학의 확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부처님 말씀을 온 누리에 전함으로써 불교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습득뿐만 아니라

참다운 수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 불교대학을 개설한 곳은 전북불교대학(ebuddhism.co.kr) 영남불교대학(cyberbuddha.or.kr) 동산불교대학(dongsanbud.org) 무불선원대학원(moobool.com) 부산 불교교육원(bulgyo.or.kr) 불광불교대학(bulgwangsa.co.kr) 인터넷불교대학(buddhistweb.com) 법화경교육원(any.to/saddharma) 등 10여개에 이른다.

전북불교대 사이버대학은 현장의 강의내용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직접 중계하며, 강건기 화상의 불교기본교리 96강을 화상으로 편집해 원격

리 학인들에게 제공한다.

인터넷불교대학도 일반인들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동영상 원격강의 교육시스템을 도입, 동영상으로 교수의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화면 좌측에 강의노트가 작동돼 입체적인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무불선원대학원은 유일하게 동영상 강좌 당 1천원씩 유료 사이트로 운영되며, 원하면 요약식 강의 노트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교계의 사이버불교대학들은 1년간 꾸준히 기술을 쌓고,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어 불자들의 관심이 높게 일고 있다. 현재 사이버불교대학들은 매주 700여명이 수강하는

등 수강인원이 점점 늘고 있다.

사이버 불교대학은 일반사회에 커져가는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사이버라는 열린공간에서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포교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터넷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신진욱 법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바른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분들이 시·공간적인 문제로 불교교양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다"며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는 사이버 교양대학 입학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대불청 형의방문단은 세계일보를 방문, 불교왜곡 기사 보도에 대해 신문지상을 통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 “불교왜곡 사과-재발방지” 요구

청년단체들 국민·세계일보 항의 방문

교계의 청년단체들이 불교 왜곡 기사를 내보낸 국민·세계일보에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방문 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익석 서울불교청년회장을 비롯해 최윤규 대불청 종교평화위원장, 전준호 조계사 청년회장 등 4명은 13일 세계일보를 방문해 불교 왜곡기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불교계 신문 및 세계일보에 게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세계일보 김찬호 상무를 비롯해 산찬균 주필 등 4명이 배석한 자리에서 최윤규 위원장은 "불교에 대한 비난 글들을 게재한 것은 중앙 일간지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신찬균 주필은 "발행인의 의

**BBS작년 광고수익 99년 비해 40% 증가**

불교방송의 광고 수익이 99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약 3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교방송의 99년 총 광고수익은 71억원인데 비해 지난해에는 130억원의 실적을 올려 약 39.1%의 높은 성장률을 올렸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12억원 정도로 불교방송 개국 이래 최고의 광고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와 함께 MBC 등 지상파 방송사 3사가 100%에 가깝게 광고시장을 판매함에 따라 그 효과가 종교방송 채널에까지 파급된 것으로 분석된다.

불교방송 광고사업부 안훈 차장은 "방송 광고는 일반 광고보다 더 시장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 훈할머니 별세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지난 97년 일본인 전직장소의 증인으로 50여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끌었던 훈할머니(한국명 이남이) 77가 고인의 세월을 뒤로한 채 15일 별세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캄보디아의 사위집에 머물던 훈할머니가 이날 오전 8시(현지시간)쯤 노환으로 숨졌다는 현지 공관의 보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대구 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불교후원회의 도움으로 영구 귀국한 훈할머니는 노령에다 언어문제 등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98년 캄보디아로 돌아갔다.

훈할머니는 사망하기 직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유언을 남겨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식 기자



# 지리산 살리기 '천도재' 연다

## 5월26일 '생명·상생' 발원... 100일기도·백두대간 중주

지리산을 살리고 지리산에서 유명을 달리던 벗을 달래는 지리산 천도재' 행사가 1백여 범종교 시민 환경단체 공동주최로 16일부터 시작됐다. 19C개 종교·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은 올해를 '지리산 살리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범종교계 100일 기도, 백두대간 중주, 지리산 중주 및 850리 도보순례(5월 1~25일), 지리산 천도재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국민행동은 16일 지리산 실상사에서 범종교계 100일 기도 입재식과 백두대간 중주 출정식을 가졌다. 입재

식에서는 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법문하고 대표들이 나와 기도를 올렸으며,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연관 스님 등으로 구성된 백두대간 중주단은 17일 지리산 천왕봉에서 기원제를 올린 뒤 4월 26일까지 백두대간 중주에 나섰다.

5월 26일 지리산 노고단에서 열리는 천도재에서는 지리산에서 희생된 유주무주의 영혼들을 위로하고 민족 화합과 평화통일을 기원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 탈북자 남한물가 체험 불교자원봉사연, 21일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가 탈북주민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남북한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생활을 이해시키기 위한 '통일씨앗가족 2001' 제2차 행사를 21일 실시한다.

이날 행사는 탈북주민 교육기관인 경기도 안성 하나원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주민 45명이 참가하며, 이들은 사천왕사에서 집결해 동대문시장으로 이동해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등 남한사회의 실물경제를 이해하는 현장학습을 하게 된다. 이어 경복궁 관람 등 우리문화 체험시간도 갖는다.

02)723-6258

한명우 기자

## '시민단체 연대회의' 27일 출범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불교환경교육원 등 불교단체와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고수협의회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 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500여개 종교·시민단체들은 27일 오후 1시 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에서 '가칭' 시민사회단체 연대

회의' 발족식을 갖고 시민사회의 총역량을 결집해 우리사회 제반의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나갈 계획이다.

이들은 특히 정치개혁 입법과 국가보안법 폐지, 인권위원회법 제정, 부패방지법 제정 등 3대 개혁 입법 과제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활동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 보물급 문화재 털이범 구속

사찰·박물관서 100억대 유물 훔쳐

해남 대둔사 성보박물관 등 사찰과 박물관에서 100억대의 보물급 문화재를 훔쳐 팔아온 절도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와 문화재사범단속반은 14일 전국의 사찰과 박물관에 보관중인 보물급 문화재를 훔친 서 모(39)씨를 문화재보호법 등 위반으로 구속하고, 달아난 박 모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훔친 문화재를 시중에 밀거래한

## "감은사 동탑 이상무" 문화재청 실측조사

감은사지 동탑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본지 보도(306호 23면)와 관련, 문화재청이 15일 실측조사를 실시한 결과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진단했다.

이날 현장 조사에 참여한 김동현

(동국대 명예교수) 문화재위원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석탑은 원래부터 기단부가 탑의 하중을 견딜 만큼 견고하지 못해 틈새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계는 "보존 조치가 시급하다는 경주 지역 문화재 전문가들과는 다른 견해"라며 "행정 당국이 안전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종욱 기자

## 어머니 시신기증에 감동 아들·며느리도 기증서약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시신을 기증하자, 아들과 며느리도 어머니의 같은 불심을 받들어 시신기증을 서약했다.

지난 5일 임종한 故 이사회(91) 보살의 시신은 "쓸모없는 육신이지만 도움이 된다면 시신을 기증하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에 기증

됐다. 이날 어머니의 시신을 기증한 아들 이민종씨(52)와 며느리 방화영씨(45)는 시신을 기증하는 자리에서 "어머니는 육신을 기증한 대신 불심을 남겨주셨다"면서 그 자리에서 생명나눔실천회에 시신기증을 서약했다.

故 장명진(80) 거사와 유희관(43) 거사 역시 6일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시신을 동국대 한의과대학과 충북대 의과대학에 각각 기증했다. 장 거사는 수녀사 신도로 불심이 남았으며, 유 거사는 생명나눔실천회 회원으로 평소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해왔다.

한명우 기자

### 2001학년도 삼화불교대 학생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개호복지사과	2년	■주간 30명 ■통신 80명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 이상 학력자	·각종금 승려·포교사
불교학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통신 80명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30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 가능
	4년	■통신 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본교 소정입학원서 1통	·추천서 1통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중국어(한의대입학과정)과	■주간 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 30명		

2. 학교연혁

1989. 7. 학교성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 배출(대입전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발행)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1994. 조계종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설립·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0.1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2. 제 10회 졸업생 배출(예정)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 2급 자격취득
- 남경중의약대학 한의대 본과 입학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1년 2월 24일까지
- 진 형 방 법: 서류전형(우편은 당일 소인 유료)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 본교 교학과: TEL. 02)511-2026 ~ 8 FAX. 02)511-1080
- E-mail: samhwade@kornet.net
- 일본동경불교: TEL 047) 376-1321, 13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 문의 바람.

### 한 의 과 대 학

1. 남경중의약대학

2. 학교소개

- 중국 최고 국립 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외국인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 군입대 연기가 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문의처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 주소: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화: 25-6798171 팩스: 25-6798168
- 한국 상담 안내처: 삼화불교대학
- 전화: 02-511-2026~8 팩스: 02-511-1080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1. 교육부 학력 인정

2.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각학년 편입가능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3.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4. 특 전

-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5. 문의처

1136-8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02) 511-2026~8  
FAX: 02) 511-1080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화불교대